

삼성전자 급락, 어닝시즌 영향력을 높이다

Quant / Strategist
변준호02) 3787-2459
ymaezono@hmcib.com

삼성전자 8.04% 급락, 09년 이후 하루 최대 하락율 기록

전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판매 및 생산 중단 이슈로 8.04% 급락하며 09년 이후 하루 기준 최대 하락율을 기록했다. 전일 외국인 순매도의 94%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은 대략 200억 수준으로 크지 않다.

시장에 주는 시사점

(1) 급락 징후보다는 지수 상단 저항의 의미

전일 삼성전자가 급락했지만 유가증권 시장 내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외국인의 업종별 매매 현황도 순매도한 업종보다 순매수한 업종이 더 많았다. 경험적으로도 삼성전자가 8% 급락한 것치고 지수는 상당히 선방한 것이다. 시장의センチメント는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삼성전자 개별 리스크에 주목해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전자가 3Q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4Q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하향 이슈가 붙어진 만큼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삼성전자 주가와 관련 삼성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시가총액의 영향력을 볼 때 KOSPI의 박스권 상단의 저항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 회복, 추가 주주환원정책 가능성, 지배구조 이슈 등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경험적으로도 삼성전자의 주가 폭락이 반드시 추가적인 삼성 전자 및 시장의 급락 사태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삼성전자 급락 이후 시장은 추가 조정 양상을 보였으나 조정 폭이 크지는 않았고 약 한 달 후를 기점으로 보면 flat한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2) 실적주에 대한 집중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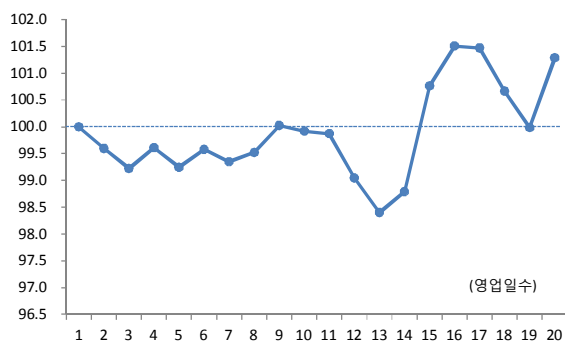
삼성전자 급락에 따라 시장의 단기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추가 급락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시장의 기대치는 다소 낮추면서도 보수적 포트폴리오로의 전환보다는 지속적인 기회 요인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삼성 그룹주에 대한 테마 이슈와 KOSPI의 박스권 상단 돌파 기대감이 지속되었으나, 이제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 낮추고 어닝 시즌에 대비한 실적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보험, 반도체, 건설, 철강, 화학, 은행 실적 상향 뚜렷, 특히 보험, 건설 매력적

최근 1주 동안의 단기 실적センチメント 상황을 보면, 보험, 반도체, 건설, 철강, 화학, 은행 등의 실적 상향이 뚜렷하다. 반도체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실적 상황을 주가가 꾸준히 반영해 왔고, 은행 및 보험은 금리 상승과 더불어, 건설, 철강, 화학 등은 유가 상승과 더불어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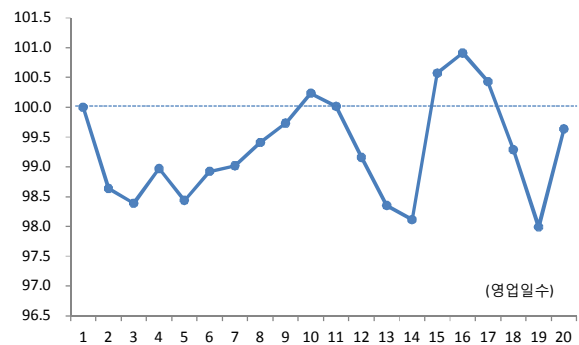
특히 보험 및 건설 업종에 대한 단기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 업종은 실적 상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한 달 주가가 flat한 흐름을 보여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가 판단되고, 건설 업종은 단기センチメント도 좋으려나 내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약 20%로 전망되고 있어 실적 기대감이 내년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1〉 삼성전자 5% 이상 급락 후 KOSPI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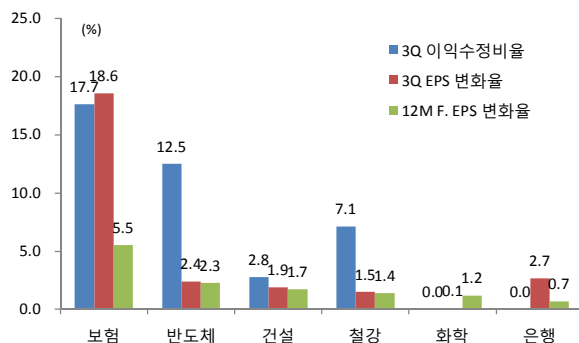
자료: HMC투자증권 주: 09년 이후 6번의 사례 평균

〈그림2〉 삼성전자 5% 이상 급락 & KOSPI 3% 이하 하락 후 KOSPI 평균 추이



자료: HMC투자증권 주: 09년 이후 4번의 사례 평균

〈그림3〉 단기(1W) 실적センチメント 상향 업종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그림4〉 실적 상향 업종 중 특히 보험, 건설주 주목

실적 상향대비 주가 못 오른 보험주

- 실적 상향 뚜렷한 가운데 최근 1M 주가 flat

내년에도 실적 모멘텀 이어질 건설주

- 컨센서스 있는 9개 주요 건설사 내년 영업이익증가율 20% 예상

자료: HMC투자증권

- 본 조사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